

탈북 女아이스하키 선수의 비참한 최후

死線 넘어 온 한국 死地가 될 줄이야...

<사선>

<사지>

탈북 후 광주에 정착한 북한 아이스하키 여자대표 선수의 '코리아 드림'이 결혼식 당일 만에 남편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 출신인 새터민 이금숙(여·26·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지난 2000년 2월 무 살의 나이에 혼자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며 불어난 뚝배기 그녀는 태국과 라오스 등 동남아를 돌

2005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 첫 출전 했다. 이듬해 3월에는 중국 초청 아시안컵 대회에 참여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 경험을 늘려나갔다. 대표팀에선 99년 탈북한 함경북도 출신 황보영(29) 선수를 언니처럼 따르며 향수를 달랬다. 대표팀 소집과 연습이 없을 때면 식당 등에 나가 품앗이 일을 하며 성공에 대한 아무진 꿈도 함

고 말했다. 술집에 나가는 사실은 안 남편과 자주 마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 김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께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사체는 5일간 벽장에 감춰뒀다가 지난 18일 새벽 여행용 가방에 담아 극락강변에 암매장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밤 가족들의 실력으로 작은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돈을 많이 벌여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남한에 데리고 오겠다"던 '코리아 드림'을 이루지 못한 채, 이씨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26일 남편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붙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부검을 할 예정이다.

한국 아이스하키 협회 관계자는 "탈북자인 이씨가 선수 생활도 잘 적응하고 동료와 잘 어울리는 밝은 성격이어서 결혼해서도 잘 살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씨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http://www.kiha.or.kr/ice-hockey)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생활이 어려워 술집에 다닐 때까지 뒤통스냐?' 등 네티즌들의 추모와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탈북 4년만에 입국 국가대표로 활약 광주서 결혼...생활고에 '호프집' 취업 불륜 의심한 남편이 살해 후 암매장

며 4년여간을 떠돌았다. 태국에서는 불법 체류로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외로운 해외 생활 중 그녀는 갖가지 잡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모은 돈은 꼬박꼬박 북에 있는 부모들에게 부쳤다.

그녀는 천신만고 끝에 2004년 7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땅을 밟았다. 남한에 입국한 그녀는 새터민 보호소인 서울 '하나원'에서 3개월가량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곧바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수비수로 발탁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4년 만에 잡아 본 스티키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몰두,

며 키웠다.

그녀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남편 김모(37)씨를 만났다. 두 달 후 국가대표팀을 떠난 뒤 10월 1일 광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남남북녀' 가정을 꾸렸다.

축하와 격려 속에 이뤄진 결혼이었지만, 두 달 만에 가출을 시도하는 등 신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운수업체 부장으로 일하는 남편의 별이 시원치 않은 탓에 가계부는 늘 적자였고, 정부에서 받은 자신의 정착금 2천500만원도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호프집'에 발을 내디딘 게 최근이 되



광주지검 '영상녹화 조사' 확대

광주지검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 사용 해온 '영상녹화 조사실'을 특수수사 분야까지 확대하고 26일 공개했다. '영상녹화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진술 반복 등의 방지를 위해 피의자의 진술 등을 녹음·녹화해 CD에 담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광주지검은 현재 5개의 영상녹화 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설치 이후 482건의 영상 조사를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요즘 도둑들 '닥치는 대로' 훔친다

'마구잡이식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전엔 현금과 귀중품 등 팔아서 돈이 되는 것만 훔쳤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이라면 무조건 훔치는 추세다.

26일 새벽 3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B원룸에서 고물수집상 최모(41·광주시 북구 오치동)씨가 가로 60cm·세로 200cm 크기의 알루미늄 대문(시가 15만원)을 통째로 뜯어내려다 지난년 주민 강모(31)씨에게 발견돼 북부경찰에 붙잡혔다.

고물수집을 하는 임모(49·인천시)씨 등 3명은 해남군 송지면 송암리 농사용 전선주에 올라가 전선 550m(시가 100만원)를 절단해

방 안 물건 '씩씩'에 대문도 통째로 뜯어

달아나는 등 12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가 26일 해남경찰에 걸거됐다.

앞서 24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사동에서 자취를 하는 최모(18)군 등 중·고생 3명이 옆집에 사는 여고생 김모(여·17·S여고 2년)양 집에 침입, 트레이닝복·이불·휴대전화 충전기·장식품·허리띠 등 방안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씩씩' 했다.

최군 등은 "남자끼리 지내다가 빨래도 하기 싫고, 생활용품이 떨어

어지자 자취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새벽 1시~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 2인조로 보이는 남자가 유리창 등을 깨고 침입, 공탁금 300만원과 현금 10만원,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비슷한 시각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도 현금 97만원을 도난당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현금 100만원이 털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생계에 필요한 물품까지 훔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서해·남해 '안개 비상'

엘니뇨 영향...농무기 빨라져 사고 주의보

서해 남해 바다가 때 이른 짙은 해무(海霧)로 비상이 걸렸다.

목포해경은 26일 "엘니뇨 현상에 따라 해상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고 이상 고온으로 농무기(濃霧期)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졌다"며 항해하는 선박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서남해 해상에서는 해무로 4건의 해상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전 8시13분께 해남군 화원면 시

하도 근해에서 짙은 안개속을 항해하던 영광선적 49t 근해유저장 '101홍창호'가 암초에 좌초, 선원 10명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사고가 잇따라 전 경비함정에 즉각 출동 및 구난태세 확립에 들어갔다"며 "사고 발생시 즉각 해경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네덜란드인 등 2명 건축 작업 중 부상

26일 낮 12시20분께 강진군 강진읍 목리 A농장에서 네덜란드인 지게차 기사 S(48)씨가 유리온실 건축 작업 중 하던 중 관유리(가로 1.5m, 세로 1m, 두께 3cm) 30여 장이 넘어지면서 아래에 깔렸다.

이 사고로 S씨가 왼쪽 다리가 골절돼 광주 동아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부 배모(27)씨도 다리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나원침 (7063) 김중두



광주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100 광동신도시 주민센터 3층 303호 062-367-9000

EEZ 위반 초어선 2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은 26일 신안군 흑산면 흑도 북서쪽 100km 해상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75t급 '노모아 0137호' 등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중학생이 학교 친구들 상습 갈취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학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돈을 빼앗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K(14)군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같은 학교 김모(14)군 등 3명을 인근 공원으로 불러내 "나는 일진회 '짱'들과 친구"라고 겁을 주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경찰은 김군 등이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 한다"는 소문을 입수, K군을 검거했다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영암 납골당 반대"

주민들, 삭발·주민증 반납 등 투쟁

금정면 이장 21명 사퇴

장흥면 상류지역인 영암군 금정면에 납골당이 들어서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삭발과 주민등록증 반납, 이장직 사퇴 등 반대투쟁에 나섰다.

영암군 금정면 주민 300여 명은 26일 오전 11시께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납골당 건립 저지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여성용소방대장·새마을부녀회장·농협주부대학회장 등 여성 3명과 이장대표·청년회원 등 8명이 삭발했으며, 주민 100여 명이

주민등록증을 반납했다. 주민들은 이어 영암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장흥군청과 유치면을 항의방문했다.

면민들은 앞으로 장흥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9개 시·군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금정면 이장단은 지난 14일 전체 22명 중 21명이 사퇴했다.

한편 납골당 설치를 추진 중인 (재)영산강배틀공원은 측은 행정심판에서 승소, 지난 15일 영암군에 사업면적 9천753㎡의 산지 전용과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신청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Advertisement for Bio-IT product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lant and text about quality management systems and ISO 9001 certification.